

#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 중심

윤미라<sup>1</sup>, 이미애<sup>2\*</sup>

<sup>1</sup>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sup>2</sup>한세대학교 교수

## The Effect of the Elderly's Ability to Perform Daily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Mee-Ra Yoon<sup>1</sup>, Mee-Ae Lee<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노인실태조사(2020) 자료의 10,097명이며,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을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파악하였다. 넷째,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 우울 감소시켜야 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 노인,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우울, 삶의 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daily activities in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097 people from the Survey on the Elderly (2020), and the SPSS 25.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in research results that analyzed the elderly's daily life movement performance by dividing it into daily life discomfort and movement performance difficult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s of discomfort and difficulty in performing daily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effects of discomfort in daily life and difficulty in motion performance in the elderly on depression were found to b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rd, the effect of depression on life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urt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was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ily life discomfort and difficulty in motion performance of the elderly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clarified that daily life discomfort, difficulty in performing movements, and depression should be reduced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rough this, a discussion was presen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Daily life Discomfort, Movement difficultie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 1. 서론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 5,182만 명의 16.5%인 853.7만 명(2021년 9월 기준)으로 향후에도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령자 2021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는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를 이루며, 남성(43.5%)보다 여성(56.5%)이 많으며, 만

\*Corresponding Author : Mee-Ae Lee(meeae@hansei.ac.kr)

Received September 16, 2022

Accepted October 20, 2022

Revised October 11, 2022

Published October 28, 2022

65~69세(33.9%), 70~74세(23.5%), 75세 이상(41.5%)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은 자신의 주관적 건강평가에서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등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을 하며[1]. 세부적으로 보면 걷기(39.9%), 유산소 신체활동(33.3%), 근력운동(18.3%)을 하고 있다[2].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노인의 생활에 대한 삶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생리적인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은 증가하고 신체기능은 저하된다. 나아가 노인은 점차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혼자 수행하는 것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노인의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은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능력으로써 노인의 기능 수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상태를 반영한다[3].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감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느끼는 기쁨과 생활에 대한 의미와 감정, 낙천적 태도와 목표성취, 책임감 등에 대한 인식이다[4]. Schuessler[5]에 의하면 삶의 만족도는 행복감, 삶의 질, 생활만족, 웰빙 등의 개념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삶의 만족을 웰빙의 개념으로 사용하거나[6] 주관적 웰빙에 대해 감정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지적 측면을 삶의 만족도로 설명하였다[7]. 한편 행복은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대체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나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이다[8]. 삶의 질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만족과 행복에 관해 주관적 인식 측면으로 이해한다[9]. 이런 점에서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 생활만족, 행복과 유사한 의미로서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 등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직장 등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세계 146개국 중 59위,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10] 속에서 생활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노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을 가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게 밝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파악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다. 즉,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우울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9,11-21], 또한 우울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다[9][14][17][20][22-24][32]. 한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되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확인되고 있다[25-27].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수행을 살펴보고 신체적 건강과 기능을 평가하고 있다[28]. 이와 같은 신체기능은 대소변 조절, 목욕하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옷입기, 이동하기, 화장실 출입 등을 통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s)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s)으로 교통수단 이용, 근거리 외출, 금전 관리, 몸단장, 물건 사기, 빨래하기, 식사준비, 전화사용, 집안 일, 약 챙겨 먹기 등으로 측정한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노인실태조사 2020[29]에서 조사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시력, 청력, 씹기로 설정하고 동작수행의 어려움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뛰거나 걷기, 계단을 쉬지않고 오르기,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러앉거나 물건을 들어올리는 것으로 설정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의 유지에 있어서 주변의 도움 없이 수행하는 것이 필수이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6][21].

이와 같이 노인의 온전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가질 때 성공적 노화를 이룬다[30-31].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면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노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가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노인의 생리적 노화가 진행될수록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저하되고 삶의 질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노인은 가족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낮고 독립적인 생활을 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10]. 이러한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0-11]에서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이 좋다면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진다고 실증하였다. 민경진과 황진수[13]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수행능력이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고, 일상생활의 활동과 삶의 질 관계에 있어서 정적

상관을 밝혔다[14,15].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9]. 노인의 우울 수준과 변화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 노인의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노화과정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신체기능은 저하되고 만성질환과 배우자 사망, 사회나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등을 경험하면서 우울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우울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흔한 정신질환으로써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32]. 이러한 노인의 우울은 신체적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체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우울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21]. 실증적 연구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22-23]에서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강한 원인변수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 노인은 우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성노인의 특성을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17]. 이와 같이 우울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하락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17].

한편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서 기능이 제한될 때 그 자체로도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불러오고, 심리적인 건강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문제를 동시에 갖는다[18]. 노인이 신체기능의 감소로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받거나 신체활동 수준을 줄인다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25]. 또한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에서 제약을 경험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우울 정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33]. 선행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 기능의 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향은 높다고 보고한다[14][25-27].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34],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우울 증상은 밀접한 관계에 놓인 것을 밝힌 선행연구도 보고된다[35]. 이는 일상생활 수행의 불편과 어려움은 신체적인 수준과 더불어 심리적 측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동작수행 수준 감소는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노인의 기능 상태가 적절하게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우울 증상의 악화는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우

울 증상의 완화를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노인의 일상생활에서 동작수행의 불편과 어려움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직접적으로 노인의 우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일상생활 동작수행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소수만 보고된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우울을 경유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우울의 매개효과 크기 즉,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 검증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우울의 중요성을 규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에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 10,097명이다. 자료수집은 노인실태조사의 설문조사가 2020년 9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 방법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조사원이 노인에게 대해 설문지 내용을 태블릿 PC를 활용한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5월부터 변수의 정제화 작업을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 2.2 변수의 구성 및 측정도구

#### 2.2.1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본 연구에서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의 척도는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일상생활 불편을 측정하는 문항은 일상생

활의 불편함의 시력, 청력, 씹기의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불편하지 않다, 2점=불편한 편이다, 3점=매우 불편하다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매우 불편하다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리를 위해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757로 나타났다.

동작수행의 어려움을 측정하는 문항은 동작수행의 어려움 운동장 한 바퀴(400m)정도 뛰기, 운동장 한 바퀴(400m)정도 걷기, 쉬지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거나 쭈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 손 뻗쳐 닿기, 쌀 1말(8kg)정도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의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수행함, 2점=시도했으나 수행 못함, 3점=수행시도조차 못하는 상태로 구성된 3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작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리를 위해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작수행이 어렵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905로 나타났다.

### 2.2.2 우울

본 연구에서 노인의 우울에 관한 척도는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우울을 측정하는 문항은 의욕저하, 헛된 느낌, 지루함, 불안함, 절망적 느낌, 나가기 싫음, 기억력 나쁨(동년배 비교), 쓸모없음, 희망없음, 다른 사람들보다 처지가 더 못함의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예, 2점=아니오로 구성된 2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다고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리를 위해 이를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는 .846으로 나타났다.

### 2.2.3 삶의 만족도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측정도구는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여가/문화활동, 친구/지역사회 관계, 자녀 관계, 삶 전반 등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1점=매우 만족함, 2점=만족함, 3점=그저 그렇다, 4점=만족하지 않음, 5점=전혀 만족하지 않음 등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본 연구에서 해석의 편리를 위해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847로 나타났다.

### 2.2.4 통제변수

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남자를 의미한다. 연령은 74세 미만=0, 75세 이상=1로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75세 이상을 나타낸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0, 고졸=1, 대졸이상=2로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역은 동부=1, 읍면부=0으로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부 즉, 도시를 나타낸다. 거주형태는 자가=1, 비자가=0으로 더미처리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6개로 선정하였다.

##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5.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첫째, 기술통계의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주요변수들의 평균과 정규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여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넷째 Baron & Kenny[36]의 매개효과 분석 3단계 방법을 활용하여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Sobel Test를 통해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6062명(60.0%), 남자가 4035명(40.0%)으로 나타나 노인은 남자가 여자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에서는 74 이하가 4084명(40.4%), 75세 이상이 6013명(59.6%)으로 나타나 75세 이상 노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6917명(68.5%), 고졸 2668명(26.4%), 대졸 이상 512명(5.1%)으로 나타나 노인의 교육수준은 대체로 중졸 이하가 큰 규모를 나타냈다. 거주지역은 동부가 7230명(71.6%),

읍면부가 2867명(28.4%)으로 나타나 노인은 대체적으로 도시에 생활하고 있었다. 거주형태는 자가 8044명(79.7%), 비자가 2053명(20.3%)으로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는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gender	woman	6062	60.0
	man	4035	40.0
	Sum	10097	100
age	74 -	4084	40.4
	75 +	6013	59.6
	Sum	10097	100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6917	68.5
	high school	2668	26.4
	university graduation	512	5.1
	Sum	10097	100
residence	city	7230	71.6
	countryside	2867	28.4
	Sum	10097	100
residence type	own house	8044	79.7
	non own house	2053	20.3
	Sum	10097	100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daily life discomfort	1.6469	.4358	-1.064	.389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3.0611	.7386	-.665	-.261
depressed	.8460	.2303	-1.866	3.101
life satisfaction	3.4762	.6138	-.234	.181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불편의 평균값(표준편차)은 1.6469(.4358), 동작수행 어려움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0611(.7386), 매개변수 우울의 평균값(표준편차)은 .8460(.2303),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표준편차)은 3.4762(.6138)로 나타났다. 평균값을 기준하면, 노인은 삶의 만족도와 우울,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알 수 있는 왜도와 첨도 분석에서 왜도는 -.234~-1.866으로 왜도 절대값 3미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이는 왜도 값이 음(-) 값을 가지면 자료의 평균(중심)이 정규분포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꼬리는 왼쪽으로 길어지는 것으로 왜도 값에 의

하면 정규분포에 작은 비대칭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첨도는 .181~3.101로써 절대값 7미만을 이루고 있어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또한 첨도 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까이 몰려 뾰족한 모양을 파악하는 것으로 분산도가 크면 집단이 이질적으로 분포의 높이가 낮아진다. 그리고 분산도가 작으면 집단이 동질적으로 분포의 높이가 높아진다. 정규분포의 첨도는 0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첨도 값은 정규분포보다 우울이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3.3 상관관계 분석**

노인의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우울,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	1	2	3	4
daily life discomfort	1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350***	1		
depressed	.331***	.303***	1	
daily life satisfaction	.268***	.292***	.267***	1

\* p < .05, \*\* p < .01, \*\*\* p < .001

1. daily life discomfort 2.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3. depressed 4. daily life satisfaction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일상생활 불편(r=.268, p<.001), 삶의 만족도와 동작수행 어려움(r=.292, p<.001), 삶의 만족도와 우울(r=.267, p<.001)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와는 동작수행 어려움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을수록,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없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우울과 일상생활 불편(r=.331, p<.001), 우울과 동작수행 어려움(r=.303, p<.001)으로 나타나 우울과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이는 우울과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간의 상관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을수록 우울이 낮으며,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없을수록 우울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3.4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거주형태,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우울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division	1model( $\beta$ )	2model( $\beta$ )	3model( $\beta$ )
gender	-.013	.012	.010
age	.142***	.074***	.078***
level of education	.198***	.163***	.157***
residence	.023 <sup>†</sup>	.012	.009
residence type	.204***	.188***	.180***
daily life discomfort		.154***	.115***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141***	.109***
depressed			.150***
R <sup>2</sup>	.131	.179	.198
F	298.21***	309.16***	306.10***
Durbin-Watson			1.841
VIF	1.02-1.10	1.03-1.29	1.03-1.35

\* p < .05, \*\* p < .01, \*\*\* p < .001

1모형에서 통제변수 중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거주형태, 교육수준, 연령, 거주지역 순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회귀식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모형에서는 1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성별을 포함해 1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난 거주지역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추가 투입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은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2모형에서는 거주형태, 교육수준,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연령 순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3모형에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거주형태( $\beta=.180$ ,  $p<.001$ ), 교육수준( $\beta=.157$ ,  $p<.001$ ), 연령( $\beta=.078$ ,  $p<.001$ )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불편( $\beta=.115$ ,  $p<.001$ ), 동작수행 어려움( $\beta=.109$ ,  $p<.001$ ), 우울( $\beta=.150$ ,  $p<.001$ ) 등의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영향력 크기는 거주형태, 교육수준, 우울,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3모형에서 결정계수(R<sup>2</sup>)는 .198로서 데이터 총 변동의 19.8%를 회귀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 매개변수인 우울이 삶의 만족도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표본자료로부터 추정된 회귀모형이 적합하게 측정된 것이다.

또한 F통계량은 306.10,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나 자유도로 조정되어 설명된 변동과 설명되지 않는 변동의 비로 선형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입된 변수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하였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분산팽창지수는 모든 변수가 1.03-21.35로 10이하를 나타내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 3.5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36]의 매개효과 분석 3단계방법을 활용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variable	Step 1( $\beta$ )	Step 2( $\beta$ )	Step 3( $\beta$ )
	depressed	Daily life satisfaction	Daily life satisfaction
daily life discomfort	.259***	.188***	.138***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218***	.226***	.187***
depressed			.164***
R <sup>2</sup>	.152	.116	.131
F	886.19***	664.30***	499.32***
D-W	1.962	1.830	1.829
VIF	1.122	1.140	1.17-1.20

\*\*\* p < .001

첫째,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로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에 일상생활 불편( $\beta=.259$ ,  $p<.001$ )과 동작수행 어려움( $\beta=.218$ ,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1단계 조건을 만족시켰다.

둘째,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로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일상생활 불편( $\beta=.188$ ,  $p<.001$ )과 동작수행 어려움( $\beta=.226$ ,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2단계 조건을 만족시켰다.

셋째,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로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에 일상생활 불편( $\beta=.138$ ,  $p<.001$ )과 동작수행 어려움( $\beta=.187$ ,  $p<.001$ ), 우울( $\beta=.164$ ,  $p<.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어 3단계 조건을 만족시켰다. 이와 같이 3단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킴과 동시에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의 표준화회귀계수 값( $\beta$ )이 2단계에서 보다 3

단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매개효과로 판단한다. 이를 볼 때 일상생활 불편, 동작수행 어려움의 표준화회귀계수 값( $\beta$ )이 2단계에서 보다 3단계에서 영향력이 감소하였기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단, 매개효과를 검증한 후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여야 한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on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Path between variables	Z	p
daily life discomfort→ depressed→ life satisfaction	14.0327	.000
difficulty performing movements→ depressed→ life satisfaction	13.2969	.000

Sobel Test의 결과 값인 Z 값이  $p < .05$  수준에서  $\pm 1.96$ 보다 크면 매개효과 유의성이 검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상생활 불편과 동작수행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고, 우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비표준화계수와 표준오차를 투입하여 Z 값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 불편 14.0327,  $p = .000$ , 동작수행 어려움 13.2969,  $p = .000$ 으로서 Z 값이  $\pm 1.96$ 을 넘고 있어 통계적으로 99.9% 신뢰수준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검증하였다.

#### 4. 결론

본 연구는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 자료에 응답한 노인 10,09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일상생활의 불편, 동작수행의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9][14][17-20]. 박선영[14], 이현심과 남희수[3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 것을 파악하였다. 배다영과 박은빈[20]에 의하면 ADL 및 IADL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율은 삶의 만족

도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26$ ,  $p < .05$ ), 이는 ADL 및 IADL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표정민, 조준, 김철화[18]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은 행복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배진성[19]에 의하면 삶의 질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정상범위의 노인 집단보다 기능장애의 노인 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낮았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정상범위의 노인 집단보다 기능장애의 노인 집단에서 삶의 질은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으로 개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인 신체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우울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은 일상생활의 불편과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우울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25-27].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제한될수록 우울 수준은 더 높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주수산나, 전해정, 최봄이[27]에 의하면 노인의 IADL 제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해지는 경향은 더 크다고 밝히고 있었다. 신은숙, 조영채[25]는 우울수준에 대한 위험비가 ADL에서는 정상범위의 노인 집단보다 기능장애의 노인 집단에서 23배가 높았고, IADL에서는 정상범위의 노인 집단보다 기능장애의 노인 집단에서 7.7배가 높게 나타났다. 즉 노인의 우울에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적을수록 우울 상태로 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ADL 및 IADL의 신체적 기능유지와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셋째, 노인의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 유의수준으로 밝혀졌다. 이는 노인의 우울이 낮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선영[14]은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배숙경, 엄태영, 이은진[9]은 대도시 독거노인에서 우울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황미구·김은주[22], 김은하이·지원[23]의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이현심, 남희수[37]의 농촌노인의 우울이 심하면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일치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우울의 감소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우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들 중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변인으로 파악하였다. 노인은 우울을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접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우울 감소를 위해 노인복지와 정신보건 분야 등 관련 분야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노인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은 우울에 직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일상생활의 불편과 동작수행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우울이 낮아지고 낮아진 우울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배숙경, 엄태영, 이은진[9]에서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우울에 직접적인 통계적 유의수준을 이루고 있었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우울을 경유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우울이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삶의 질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 검증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박선희, 서순림, 김홍순[17]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일상수행능력이 낮을수록 우울정도는 높고, 우울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와 우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본 연구결과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우울을 경유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밝힌 결과와 궤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 [29]를 이용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 2020 자료[29]의 횡단적 시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한점이 따른다. 그리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우울만을 변수로 설정하여 영향 관계를 살펴보다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수를 개입하여 구체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1). 2021 Senior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2]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1).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9. <https://kdca.go.kr/index.es?sid=a2>
- [3] J. J. Jeong, H. Y. Choi, K. Y. Lee, T. J. Park, J. S. Kim.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ADL and IADL from the Thir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II), 2005.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8), 598-609. UCI : G704-000343. 2009. 30. 8. 005
- [4] Gilligan, T. D., & Huebner, S. (2007). Initi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udentsLife Satisfaction Scale-Adolescent Version.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2(1), 1-16.
- [5] Schuessler, K. F.(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 [6] Haller, M., & Hadler, M. (2006).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169-216.
- [7] Frey, B. S., & Stutzer, A. (2000).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The Economic Journal*, 110(466), 918-938.
- [8] S. S. Park. (2018).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n the Aged's Life Satisfaction : Using Decision Tree Model.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9(3), 39-57. DOI : 10.16881/jss.2018.07.29.3.39.
- [9] S. K. Bae, T. Y. Um, E. J. Lee. (2012). A Study of the Effect of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Lone Sen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4), 5-30. <http://dx.doi.org/10.15709/hswr.2012.32.4.5>
- [10]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2022). 2021 World Happiness Report. <https://www.unsdsn.org/>
- [11] B. Ch, Jeong, Ch. H. Nam, S. K. Ch, D. M. Shin, G. Y. Kim. (2005). Factors Influencing Older People's Quality of Lif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1(2), 124-137. UCI : I410-ECN-0102-2009-510-001331210
- [12] G. Y. Jang, J. M. Kang. (2005). The Study of Activities of Daily Living Performance and Quality of Life for Elderly Residents in the Daejeon City.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3(1), 45-56. <http://www.kaot.org>
- [13] K. J. Min, J. S. Hwang. (200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aily Activities on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6, 221-246.
- [14] S. Y. Park. (2009). A Study on Depression, ADL, IADL, and QOL among Community-Dwelling, Low Incom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3(1), 78-90.
- [15] H. K. Kim, H. J. Lee, S. M. Park. (2010).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Elderly Women Living Alon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0(2), 279-292. <http://www.tkgs.or.kr>
- [16] O. M. Baik.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functional health outcom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 Applying Andersen's revised model.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1-27.
- [17] S. H. Park, S. R. Suh, H. S. Kim. (2015). Factors Affect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ged Wome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1(2), 119-125. DOI : 10.14370/jewnr. 2015. 21.2.119
- [18] J. M. Pyo, J. Cho, S. H. Kim. The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Ability to Perform Daily Life in Old Age on Happiness Through Self-esteem.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HSS21)*, 12(3), 673-685.
- [19] J. S. Bae. (2022).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3-106.
- [20] D. Y. Bae, E. B. Park. (2022). Activities of Daily Living(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An Application of Parallel Process Latent Growth Model. *Association of Families and Better Life*, 40(1), 11-25. DOI : 10.7466/JFBL.2022.40.1.11
- [21] E. Rubio. E. Lazaro. A. Sanchez-Sanchez. A. (2009). Social participation and independence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 cross sectional study. *BMC Geriatrics*, 9(26), 1-11. DOI: <https://doi.org/10.1186/1471-2318-9-26>
- [22] M. H. Hwng, E. J. Kim.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uicide Ideation.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1, 385-404.
- [23] E. H. Kim, J. W. Lee. (2009). A Study on Activity of Daily Living,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of Elderly to Types of Residency (in Home and in Institu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1(1), 183-197. UCI : G704-000930.2009.11.1.036
- [24] Mecocci, P., Cherubini, A., Mariani, E., Ruggiero, C., Senin. U. (2004). Depression in the elderly: new concepts and therapeutic approaches. *Aging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6(3), 176-189.
- [25] E. S. Shin, Y. C. Cho. (2012).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Physical Function(ADL, IADL) Among the Rural Elderl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 201-210. DOI : 10.5762/KAIS.2012.13.1.201
- [26] K. H. Kim. (2018). The Impact of ADL Disability through Social Networks on Depression in Old Age. *Korean Society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3(2), 49-77. DOI: 10.21194/kjgsw.73.2.2018.06.49
- [27] S. S. N. Ju, H. J. Jeon, B. I. Choi.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ty Home Elderly Welfare Facilities on the Effects of the Elderly's Daily Living Performance and Instrumental Daily Living Performance on Depression. *Korean Society of Educational Gerontology*, 2017(3), 1-27.
- [28] S. B. Lee, N. W. Hur. (202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s ADL/IADL: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2(4), 419-429. DOI: 10.5762/KAIS.2021.22.4.419
- [29]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Elderly Survey 2020.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
- [30] The WHO QOL Group. (1988). Develop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l Med*, 28, 551-558. <https://doi.org/10.1017/S0033291798006667>
- [31] Y. A. Lim, Y. C. Cho. (2017).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at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210-220. <http://doi.org/10.5762/KAIS.2017.18.8.210>
- [32] S. N. Kim, S. B. Lee. (2013). Spiritual well-being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186-194.
- [33] N. Ch. Kim, S. Yang. (2001). Physical Health Status and Depression of a Community-Dwelling Elderly

Group.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6), 1012-1020.  
DOI : 10.4040/jkan.2001.31.6.1012

- [34] K. J. Lee, H. S. Park. (2006). A Study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for the Elderly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12(3), 221-230. DOI : 10.4069/kjwhn.2006.12.3.221
- [35] J. H. Yoo, S. K. Chu, K. O. Ban,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 family function, and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the elderly fema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3(1), 40-49.
- [3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 15(6), 1173-1182.
- [37] H. S. Lee, H. S. Nam. (2010). The Effect of Daily Living Activities, Depression, Self-respect,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of the Rural Elderly on Their Life Satisfaction -Case Study on the Yeosu County.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17(4), 957-984.

윤미라(Mee-Ra Yoon)

[정회원]



- 2012년 2월 : 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상담학과(학사)
- 2017년 2월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20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2020년 5월~현재 : 국제사이버대학교 강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개발
- E-Mail : na-nuri2051@naver.com

이미애(Mee-Ae Lee)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학사)
- 1994년 6월 : Syracuse University Dept. Public Administration(석사)
- 1997년 6월 : Syracuse University Dept. Social Science(박사)

- 1999년 3월~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호
- E-Mail : meeae@hansei.ac.kr